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으로 개명한 소상공인공제

내년 ‘제2의 도약기’ 138만·14.1조 도전

〈고객 수〉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상품인 노란우산공제가 얼굴을 새로 단장했다. 내년을 ‘제2의 도약기’로 삼고 고객 138만명, 공제부금 14조1000억원에 도전한다. 모델도 텔런트 김영철, 가수 송가인으로 바꾸고 대중들에게 더욱 바짝 다가가기로 했다.

당초 월 5만~100만원이던 부금액도 1만~200만원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가입자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브랜드 네이밍을 기존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우산’으로 바꾸고 제도 개선, 고객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제의 본분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간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부금 11.9조 부금액 1만~200만원으로 늘려

제도개선, 고객복지 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노란우산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했다. 10년이 훌쩍 넘은 올해 10월 말 현재 가입자만 122만명, 공제부금은 11조9000억원이 모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공제금을 타간 가입자는 30만2000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에게 돌아간 공제금은 2조1600억원에 이른다.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들이 생활안정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하기 때문에 2년간 최고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숙박·레저, 의료·장례 등 다양한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에 바뀐 BI는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제’를 빼 노란우산으로 단순화했다. 브랜드에 대한 연상을 보다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서브타이틀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표시해 사업실체를 분명하게 했고, 법적용어도 한꺼번



노란우산의 변경 전·후 BI.

에 표시하는 효과를 노렸다. 노란우산의 노란은 ‘밝은 미래와 희망’을, 우산은 ‘안전한 보호’를 각각 의미한다.

중기중앙회는 다른 공제 상품 대비 경쟁력 강화, 고객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노란우산자문위원회 운영 ▲단기 계약자 공제금 수령시 퇴직소득 과세→이자액을 한도로 퇴직소득 과세를 통한 세부담 완화 ▲월부금액 최소 1만원으로 하향,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월납, 분기납에 추가해 반기납, 연납 등 납부 방법 다양화 ▲부금 1회 납부→정상계약 전환 등 ‘계약부활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중앙회 이원섭 본부장은 “현재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보증서발급 수수료를 기존 1.2~1.5%에서 0.9%로 낮춰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월 1·2·5만원의 장려금도 지급 대상 지자체를 늘리고, 장려금 최저액을 2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추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학원강사, 운동선수, 간병인, 가수, 텔런트, 캐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 이들을 노란우산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노란우산에 가입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5000명 가량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또 국제행정정보망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추가로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1곳인 콜센터도 경쟁체제를 도입, 2곳으로 늘린다. 행정안전부와 합의해 노란우산 고객인 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백년가게’ 79곳 추가... 총 288곳

공중식 육개장, 대전시 ‘명랑식당’ 매듭기능 전수자 운영 ‘하영사’ 등 음식점업 56곳, 도소매업 23곳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별 4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79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백년가게는 총 288개가 됐다.

백년가게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성공 모델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 중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백년가게는 음식점업이 56개, 도소매업이 23개로 79

개다. 대를 이은 비법으로 독특한 노하우를 쌓은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1대 대표가 순종 임금의 수라간 상궁이었던 친고모에게 육개장 요리법을 배워 공중식 육개장을 만든 것이 시초가 된 대전시 동구의 ‘명랑식당’(업력 32년), 매듭기능전수자가 운영하며 단순한 소매 매장을 넘어 매듭 공방이자 소통 장소로 활용되는 서울 중구의 ‘하영사’(업력 38년), 4대째 이어오는 가문의 비법인 춘장으로 유명한 전북 남원시의 중화요리전문점 ‘경방루’(업력 42년) 등 대를 이은 비법으로 독특한 노하우를 쌓은 업체들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전국의 백년가게는 업종별로 음식점업 205개, 도소매

업 83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개, 경기 28개, 전북 27개, 충북 26개 순으로 많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대표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백년가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의체 활동을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경영노하우 공유 기회 마련,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인센티브 발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수렴한다.

중기부는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백년가게 방문 SNS 방문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배한남 기자 ericabae1683@



소공연, 소외이웃에 김장김치 전달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 이웃사랑 김장 나눔 행사’를 지난 29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 테니스 경기장에서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및 가족,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 20톤은 지자체를 통해 추천받은 2000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태 회장(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 이웃사랑 김장 나눔 행사’를 지난 29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 테니스 경기장에서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및 가족,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 20톤은 지자체를 통해 추천받은 2000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태 회장(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삼표, 레미콘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원료 채취부터 모든과정 공개

삼표그룹이 친환경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삼표산업 24개, 계열사 3개 등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레미콘 제품의 4개 규격(24, 27, 30, 35 MPa)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EPD)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원료 채취부터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의 환경 영향을 계량화해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삼표그룹은 레미콘에 대한 환경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 환경 신뢰성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 받았다.

삼표는 한국산업표준(KS)보다 강화된 자체 품질기준(SKS)을 운영해 친환경 규격을 만족하는 고품질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다. 철저한 원자재 관리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경기 화성시에

웅진코웨이,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선정

2년 연속 환경가전부문 1위

웅진코웨이는 한국마케팅협회가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 환경가전 부문 1위에 뽑혔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은 한국 산업의 올바른 지속성장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 지역사회 발전, 상생협력 등 공익 발전에 기여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을 조사, 선정하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이번 조사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불복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웅진코웨이는 저탄소 녹색경영을

실천하기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를 2010년 대비 50%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혁신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공장 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고효율 LED 조명 및 에너지 저장장치 도입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강화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단체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호평받았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4월 춘천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신한은행과 함께 ‘정수기 지원 사업’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주민을 위해 정수기 및 관리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며 식수 환경 개선에 나섰다. /김승호 기자

업계에서 유일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된 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레미콘 공장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인 레미콘까지 성분·물리적 특성 등을 분석하고 각종 실험 데이터를 공유한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삼표그룹이 취득한 4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녹색건축물로 인증되면 용적률 등 건축물기준 완화·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야놀자, 빅데이터 기반 예비스타트업 성장 지원

야놀자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관광 분야 예비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야놀자는 11월 28일,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네트워킹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관광분야 예비 스타트업 40개사를 대상으로,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소개와 이를 활용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